

The Cultural Politics of the Korean Language and Korean Sounds on the Academy Stage : The Two Academy Awards of K-Pop Demon Hunters and the Cultural Reconfiguration of Pansori and K-Pop

Lee, Jong-yeon (First Author)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0421whddus@naver.com

Shin, Seong-hwan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ung-Ang University, Korea
dkssamga@cau.ac.kr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s the cultural and political significance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sounds represented on the global stage through the two Academy Awards won by K-Pop Demon Hunters. It explores how K-pop, pansori, and traditional Korean cultural elements were reconfigured within contemporary animation and global popular culture.

Methods The study analyzes the Academy Awards performance of “Golden,” focusing on the use of Korean lyrics, pansori vocality, samulnori rhythms, hanbok, and traditional performance elements. It also examines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film and its creators to investigate issues of language, representation, and diasporic identity.

Conclusions The success of K-Pop Demon Hunters demonstrates that Korean language and Korean sounds can be received globally without translation or cultural dilution. The film reinterprets traditional culture through the aesthetics of K-pop and animation while highlighting the cultural agency of diasporic creators. This case illustrates how Korean language, pansori, and K-pop have emerged as important cultural resources within the global expansion of K-Culture.

Keywords K-Pop Demon Hunters; K-pop; pansori; Academy Awards; Korean language; sound sovereignty; diaspora; K-Culture

<https://www.ijkculture.com>, DOI: doi.org/10.23159/IJKC.2026.6.312.002

Received: May 20, 2026 ; Reviewed: June 10, 2026 ; Accepted: June 30, 2026

pISSN 2951-2808 eISSN 2951-2883

www.kci.go.kr

아카데미 무대에 오른 한국어와 한국적 소리의 문화 정치학

– 「케이팝 데몬 헌터스」 2관왕과 판소리, K팝의 문화적 재구성 –

이종연 / 신성환

차례

1. 서론
 2. 아카데미 시상식의 무대와 한국적 소리의 진입
 3. 판소리와 K팝의 결합
 4. 세계가 따라 부르는 한국어: 번역되지 않은 언어의 문화적 힘
 5. 결론: K-컬처의 다음 국면과 소리의 주권
-

1. 서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2관왕은 K-컬처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인상적인 사건이다.¹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작품이 지닌 서사적 완성도, 음악적 흡인력,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확산력, 그리고 한국적 소재의 세계적 수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골든글로브와 그래미에 이어 아카데미까지 이어진 수상 경로는 K-콘텐츠의 성공담에 또 하나의 장면을 더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한국 콘텐츠가 세계를 석권했다”는 일차원적 환호에 머무른다면, 정작 이 무대가 남긴 더 중요한 질문은 흐려진다.

그 질문은 바로 무엇이 그 무대에서 울려 퍼졌는가이다. 아카데미 시상식의 무대에 오른 것은 영어로 매끄럽게 번역된 한국 문화가 아니었다. 판소리의 발성, 한국어 가사, K팝

¹ 케데헌, 오스카 2관왕 수상... ‘한국인 위한 것’. (2026, 3월 16일). BBC.

보컬, 한복과 갓, 장삼, 사물놀이, 민속무용이 한 무대 안에서 서로 겹쳐졌다.² 한국 문화는 해설되어야 할 이국적 대상이 아닌 직접 소리를 내고 몸을 움직이는 공연의 주체로 등장했다. 이 장면은 한국적 요소를 장식적으로 나열한 무대와는 차이점을 드러내며, 서로 다른 시간의 한국 문화가 동시대적 퍼포먼스 안에서 다시 결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주제가상 수상곡 「골든」의 축하 무대는 이 점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K팝의 대중적 사운드가 중심을 이루면서도, 그 앞뒤에는 판소리와 전통 타악, 민속적 몸짓이 배치되었다. 판소리는 과거의 소리로 박제되지 않았고, K팝은 서구 팝의 모방으로 축소되지 않았다. 두 소리는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오히려 애니메이션의 서사와 시상식의 무대 언어 속에서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전통은 복고적 장식보다는 현재형의 에너지로 작동했고, K팝은 글로벌 팝의 형식을 빌리면서도 한국어와 한국적 리듬을 드러냈다.

이재의 수상 소감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한국어 가사 그대로 따라 부른다”는 말은 이 사건의 의미를 압축한다.³ 오랫동안 비영어권 문화가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번역, 현지화, 영어화, 서구적 코드의 수용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한국어는 종종 세계화를 위해 설명되거나 보조되어야 하는 언어로 취급되었다.⁴ 그러나 「골든」의 무대가 보여준 것은 다른 가능성이다. 한국어는 더 이상 감추거나 희석해야 할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발화되고, 노래되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세계적 사운드가 되었다.

이 점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수상은 일차원적인 흥행이나 수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식으로 들리고, 보이고, 인정받는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매기 강 감독이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고 말한 장면 역시 중요하다.⁵ 이 언급은 작품의 성공을 특정 제작진의 성취로만 돌리지 않는다. 오히려 오랫동안 충분히 재현되지 못했던 얼굴과 언어, 소리와 정체성이 세계적 무대에서 자리를 얻었다는 감각을 드러낸다. 여기에는 디아스포라의 경험, 문화적 회복의 감정, 그리고 한국어로 말하고 노래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함께 놓여 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리의 주권(Sonic Sovereignty)’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본래 소리의 주권은 종족음악학 및 소수자 연구에서 지배 문화의 동화 압력에 저항하여

2 이가영. (2026, 3월 16일). 아카데미에 등장한 판소리와 복... 한국문화 담은 ‘골든’ 무대. 조선일보.

3 권남영. (2026, 3월 16일). “한국에 바친다”... ‘케데헌’ 2관왕, 마침내 오스카를 품다. 국민일보.

4 정명교. (2015).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향한 문학적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교류 텍스트 구성과 번역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3(2), 212.

5 김세정. (2026, 3월 16일). “모든 한국인에 바친다” ‘케데헌’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KBS뉴스.

공동체의 고유한 소리와 리듬을 통제하고 보호하는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⁶ 국내 학계에서는 이 개념을 글로벌 대중문화 연구의 분석 틀로 본격적으로 도입한 선행 연구가 공백 상태에 있으나, 이 글에서는 이를 서구 및 영어 중심의 글로벌 대중문화 헤게모니에 대응하는 K-컬처의 전략적 실천으로 확장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즉, 글로벌 대중문화 시장에서 소리의 주권이란 비영어권 문화가 세계 무대에 진입할 때 서구 중심의 문법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 언어와 리듬, 발성, 감정의 질감을 스스로 선택하고 유지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뜻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2관왕을 ‘K-콘텐츠의 성공’이라는 익숙한 틀에만 가두지 않고, 소리의 문화정치학이라는 관점에서 읽고자 한다. 한국어, 판소리, K팝, 전통 퍼포먼스가 세계적 시상식 무대에서 어떻게 결합되었는지, 그 결합이 한국 문화의 재형 방식과 언어적 자부심, 디아스포라 정체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피려는 것이다. 이 무대의 핵심은 상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어와 한국의 소리가 번역이라는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세계의 중심 무대에서 그대로 울려 퍼졌다는 점이다.

2. 아카데미 시상식의 무대와 한국적 소리의 진입

아카데미 시상식은 한 해의 우수한 영화를 가려내는 행사의 의미를 지니는 데 그치지 않고, 할리우드가 오랫동안 구축해 온 서구 중심적 문화 권위와 헤게모니를 대변하는 상징적 공간이다.⁷ 이 무대에서 어떤 언어가 발화되고 어떤 음악이 선택되는가는 글로벌 문화 지형 내에서의 ‘문화적 승인’ 여부와 직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상 축하 무대는 서구의 문화적 중심부에 비영어권의 로컬 사운드가 원형의 질감을 유지한 채 진입하여 주체적인 공연 언어로 기능했음을 입증한 사건이다.

이 무대의 핵심적인 성취는 한국 전통문화 요소의 피상적인 시각적 나열이 아니라, 시간적 추이에 따른 사운드의 입체적 배치와 연출 구조에 있다. 축하 퍼포먼스는 시간의 흐름과

6 Reed, T. (2019). Sonic sovereignty: Performing Hopi authority in Öngtupqa. *Journal of the Society for American Music*, 13(4), 508-536.

7 추혜원. (2020).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과 영화 〈기생충〉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신문 분석 기득권과 아웃사이드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52.

사운드의 성격에 따라 ‘판소리 도입’, ‘K팝 본곡’, ‘복합적 융합 및 전환’이라는 명확한 3단계의 구조를 취한다.

첫째, 무대의 서막을 여는 판소리 기반의 OST 「헌터스 만트라(Hunter's Mantra)」 도입부는 서구식 오케스트레이션이나 팝 사운드를 배제하고 명창의 독창으로 구성되어 청각적 충격을 창출한다. 판소리 특유의 선 목소리와 밀고 당기는 발성은 지배적인 서구식 청각 질서에 균열을 내며, 아카데미라는 공간을 작품의 초현실적 세계관으로 전환하는 주문의 기능을 수행한다.⁸ 이는 전통음악을 후방의 배경음으로 배치하던 기존의 연출 관행을 거스르고, 판소리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무대의 주도권을 로컬 사운드가 선점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본곡 「골든(Golden)」으로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현대적인 K팝 보컬 사운드로의 급격한 전환이 전개된다. 극 중 가상 걸그룹 ‘헌트릭스’의 보컬을 맡은 이재,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무대 중앙에 등장하면서 사운드의 중심축은 신시사이저와 디스코 비트 기반의 글로벌 팝 문법으로 이동한다.⁹ 이때 사운드의 배치는 보컬을 중심에 두고, 전통 타악 장단이 그 하부를 받쳐주며 동적인 운동성을 밀어 올리는 층위별 구조를 형성한다. 사물놀이의 북과 장구 리듬은 K팝의 드럼 머신 비트와 정교하게 싱크로되어 물리적인 박동감을 증폭시키는 내재적 에너지로 기능한다.

셋째, 퍼포먼스의 후반부 동선 연출은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해체하는 입체적 구성을 보여준다. 무대 중앙의 K팝 가창자들을 중심으로, 사물놀이 악사들과 갓을 쓰거나 장삼을 걸친 민속무용수들이 외곽에서 격렬한 동선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에워싼다. 장삼의 긴 소매가 만드는 시각적 꺾적과 상모의 회전 운동은 K팝 안무의 절도 있는 군무와 교차하며 무대에 고유한 시각적 리듬을 부여한다. 한복과 복식 요소들은 박제된 민속적 유물로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격렬한 신체 운동과 결합하여 동시대적 에너지를 시각화하는 수행적 도구로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무대는 한국의 소리와 시각 코드를 서구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보조 자막이나 번역에 의존하여 해설하지 않았다. 치밀하게 안배된 사운드의 배치, 발성의 질감, 그리고 시청각적 퍼포먼스의 역동적 동선을 통해 공간을 장악했다. 서구 중심적 권위의 공간 안에서 로컬의 사운드가 주변부에 머물지 않고 공간의

8 김현주. (2008). 판소리의 다문화적 성격과 문화연변. 구비문화연구, 26, 119-124; 신하울, 「판소리와 가야금병창의 성음 분석 연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참고

9 김제나. (2025). 영어 중심 K-pop의 문화적 정체성과 초문화적 수용: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95. 44-45.

성격을 규정하는 주체로 우뚝 섰다는 점은 무대를 통한 문화주권의 확보라는 문화정치적 의의가 존재한다.

3. 판소리와 K팝의 결합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무대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판소리와 K팝이 한 무대 안에서 유기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흔히 전통과 현대의 만남은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 형식 위에 덧입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동시대 K팝 산업이 한국 전통문화 요소를 전유해 온 방식은 크게 음악적, 시각적, 퍼포먼스적 층위로 범주화된다.¹⁰ 음악적 차원에서는 전통 악기의 사운드를 샘플링하거나 구비적 추임새를 가사에 단편적으로 삽입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는 대개 디지털 이펙터를 통해 변형되어 현대 대중음악 문법 하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시각적 차원에서는 무대 연출이나 뮤직 비디오에 전통 복식, 건축, 민속적 기호를 배치하여 이국적인 시각 효과나 판타지를 자극하는 데 집중되었다. 퍼포먼스적 차원에서는 전통 연희와 무용 요소를 일회성 이벤트 형식으로 결합하는 시도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러한 시도들은 전통적 동시대적 변주 가능성을 타진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그 요소를 분절화된 장식이나 표면적 기호로 소비함으로써, 전통 그 자체의 시간과 맥락을 상실케 했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무대에서 판소리는 K팝의 표면을 꾸미는 배경음이나 장식적 기호로 물러나지 않고, 공연의 개시를 알리는 주체적 사운드로 등장한다. 명창의 목소리는 청자에게 대상을 설명하기보다 고유의 발성과 호흡을 통해 청각적 충격을 직접 전달한다. 판소리는 본래 구술성과 연행성에 기반하여 한 명의 소리꾼이 목소리만으로 다층적인 인물, 감정, 서사적 공간을 창출하는 일종의 ‘이야기 예술’이다.¹¹ 고수의 북 장단 역시 보조적인 반주가 아니라 서사의 속도와 긴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무대에서 판소리의 도입은 오래된 전통음악의 시청각적 표본을 전시하는 차원을 넘어, 애니메이션 내부에서 그랬듯이, 그것이 구축한 가상 세계관의 문을 현실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서사적

10 김희선. (2025). 국악의 전유와 K-헤리티지의 협상: 디지털 전지구화 시대 K-팝의 한국적 미학의 재구성. *이화음악논집*, 29(3), 120-122.

11 최진형. (2017). 판소리에 나타난 구술성, 서사성, 연행성의 관련 양상. *구비문화연구*, 45, 107.

동력으로 작동한다.¹² 소리꾼의 발성이 지닌 음향적 에너지가 관객에게 작품의 내러티브적 결을 선제적으로 체험하게 만드는 기제로 기능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소리의 서사적 특성은 현대 K팝이 지닌 복합적 퍼포먼스 체계와 맞물리며 결합의 밀도를 높인다. K팝은 단순한 청각적 사운드를 지양하고 음악, 안무, 패션, 세계관, 디지털 플랫폼 유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층적 시스템이다.¹³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이 K팝 고유의 구조를 애니메이션 서사 내부로 흡입하여, 작품 속 걸그룹 ‘헌트릭스’의 음악을 캐릭터의 정체성을 표출하고 내러티브를 전개하는 핵심 장치로 활용한다. 주제가상 수상곡 「골든」은 작품 안팎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하며, 아카데미 무대에서의 연행을 통해 가상 서사와 현실의 글로벌 수용 체계를 교차시킨다.

그러므로 본 무대에 구현된 판소리와 K팝의 결합은 구시대의 유산과 동시대 사운드의 기계적인 접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적 궤적을 지닌 두 가지 서사적 소리 체계의 융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판소리가 한국인의 역사적 감정과 서사를 유기적인 긴 호흡으로 운반해 온 목소리의 기술이라면, K팝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동시대적 감각과 리듬을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사운드 체계이다. 두 소리의 만남은 과거와 현재의 평면적 병렬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청각적 질서를 구성한다. 이는 전통이 현대적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흡수되거나 순화되는 현상과 구별된다. 오히려 판소리의 원형적 사운드가 무대의 도입부를 장악함으로써 현대적 K팝 사운드를 한국적 소리의 역사적 연속성 위에 위치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자본 논리 속에서 전통문화가 소비될 때, 그 깊은 맥락이 탈색되고 단지 이국적인 장식 기호로 전유될 위험은 상존한다. 주류 K팝 시장이 세계화 과정에서 언어적·음악적 코드 스위칭을 통해 로컬의 색채를 전략적으로 무취화해 온 경향은 이를 방증한다.¹⁴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무대가 차별적 지위를 획득하는 까닭은 전통 요소를 단편적인 소품으로 호출하는 상업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판소리라는 원형적 사운드와 디아스포라 창작자의 내면화된 정체성을 K팝의 형식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이다. 판소

12 김윤희. (2026). K-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서사 맥락과 ‘노래’의 수행성-무속적 제의 노래 기능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52. 18-23.

13 배순탁. (2025). [배순탁의 셋리스트] K팝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비결은?. 나라경제, 419, 77.

14 신사빈. (2018). 케이팝의 수출 지향적 음악 정체성 존리(John Lie)의 『케이팝(K-Pop)』. 대중서사연구, 24(3), 505-510.

리와 K팝을 하나의 공연적 흐름 안에 배치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소리가 어떻게 변주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적 소리는 과거에서 현재로, 지역에서 세계로, 구술적 서사에서 디지털 팬덤으로 이동하면서도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판소리의 구술적 목소리와 K팝의 디지털 보컬 사운드가 이룬 음악적 수용은, 글로벌 자본 논리 속에서도 비영어권 지역의 고유한 진정성이 소멸하지 않고, 자신들의 소리의 주권을 성공적으로 선언할 수 있음을 실증한 문화정치적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세계가 따라 부르는 한국어: 번역되지 않은 언어의 문화적 힘

이재의 수상 소감에서 가장 오래 남는 문장은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 노래를 한국어 가사 그대로 따라 부른다”는 말이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K-컬처가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위상이 함께 담겨 있다. 한때 비영어권 음악이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영어 가사, 영어 제목, 영어 인터뷰, 영어권 청중에게 익숙한 프로덕션이 거의 필수 조건처럼 여겨졌다.¹⁵ 낯선 언어는 장벽으로 간주되었고, 세계화는 종종 영어화와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K팝은 이 통념을 완전히 따르지 않았다. 한국어 가사를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팬덤을 형성했고, 오히려 그 언어적 낯섦이 팬덤의 몰입과 해석을 자극하는 요소가 되었다. 「골든」의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은 이러한 흐름이 대중음악 팬덤의 영역에서 확장되어 영화음악의 권위 있는 무대에서도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국어는 단순히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리듬과 발음, 억양과 호흡, 감정의 질감을 가진 소리이다. 외국인 청중이 한국어 가사의 모든 뜻을 즉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언어가 만들어내는 음성적 에너지와 반복의 구조, 멜로디 안에서의 배치, 퍼포먼스와 결합한 감정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다. 노래에서 언어는 의미 이전에 소리로 도착한다. 특히 K팝의 경우 가사의 의미, 안무, 표정, 의상, 카메라워크, 팬덤 해석이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언어적 이해는 하나의 층위일 뿐이다. 한국어는 번역되어야만 세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리고 따라 불리며 몸에 익는 방식으로 수용된다.

이 점은 문화 번역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흔든다. 오랫동안 문화의 세계화는 낯선 것을 익숙하게 바꾸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¹⁶ 현지 청중이 낯설어하지 않도록 언어를 바꾸고,

¹⁵ 정명교, 위의 글, 212.

문화적 맥락을 줄이고, 지역적 색채를 희석하며, 보편적 정서라는 이름 아래 차이를 완화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K팝 팬덤은 이와 다른 경로를 보여주었다. 글로벌 팬덤은 도착어 중심의 자국화 번역 관행을 거부하고, 출발어의 문화적 맥락과 고유성을 날것 그대로 노출하는 이국화전략을 주체적으로 선택해 왔다.¹⁷ 팬들은 낯선 한국어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발음을 따라 익히고, 가사 번역을 찾아보고, 자막과 해석 영상을 공유하며, 노래 속 표현을 스스로 배워갔다.¹⁸ 특히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Reddit) 등에서 한국어 후렴구인 ‘영원히 깨질 수 없는’의 초보자용 발음 가이드라인이 자발적으로 생성되어 공유되고, 한국어 가사의 낯선 청각적 질감을 비슷한 발음의 영어 표현으로 치환하여 즐기는 ‘유희적 오청’ 문화가 하나의 놀이로 소비되는 현상은 언어적 장벽이 거부감이 아닌 능동적 참여와 초문화적 수용의 매개로 재맥락화되었음을 입증한다.¹⁹ 수용자가 낯섬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낯섬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 것이다.

「골든」의 한국어 가사가 아카데미 무대에서 불리고, 객석의 할리우드 배우들이 응원봉을 흔드는 장면은 이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응원봉은 원래 K팝 팬덤의 장치이다. 콘서트장에서 팬들이 특정 아티스트와 자신을 연결하는 빛의 도구이며, 노래를 듣는 행위를 함께 참여하는 행위로 바꾸는 매개이다. 그 응원봉이 아카데미 객석에 등장했다는 것은 K팝의 팬덤 문화가 할리우드의 제도적 무대 안으로 들어왔음을 뜻한다. 그 순간 한국어 가사는 낯선 언어가 아니라 함께 호응할 수 있는 사운드가 되었고,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새로운 문화적 리듬이 만들어졌다.

그렇다고 이 장면을 한국어가 영어를 대체했다는 식의 승리주의로 읽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세계 문화의 중심 무대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가 자기 소리의 형태를 유지한 채 울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국어가 영어로 번역되어야만 이해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 음악과 퍼포먼스 안에서 직접 감각될 수 있는 언어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세계화가 단일한 중심 언어를 향해 수렴되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 언어가 각자의 소리와 리듬을 유지한 채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가 “어릴 때 사람들은 내가 K팝을 좋아한다고 놀렸다”고 말한 대목도 이 맥락에서

16 현택수. (2004). 문화의 세계화와 한국문화의 정체성 비언어극 <난타>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0, 176-177.

17 장혜선. (2021). 방탄소년단 콘텐츠 팬자막의 번역 전략. 인문콘텐츠, 63, 196.

18 외국인들 “K팝 때문에 한국어 배워”. (2012, 4월 4일). 국민일보.

19 김제나, 위의 글, 66-67.

중요하다.²⁰ 매기 강 감독 역시 유년 시절 ‘한국은 발달이 덜 된 나라’라는 주변의 왜곡된 시선에 충격을 받았던 기억을 환기하며,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이를 작품에 투영하고자 했음을 고백한 바 있다.²¹ 이 말에는 한국 대중문화가 한때 주변적 취향으로 취급되었던 기억이 담겨 있다. 특히 디아스포라 혹은 이중문화 환경에서 자란 이들에게 한국어 노래와 K팝은 자부심의 대상이면서도 때로는 숨겨야 할 취향이었을 수 있다.²²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주류 문화와 다른 음악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거나, 자신의 문화적 취향을 설명해야 했던 경험은 개별적인 일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문화적 위계가 개인의 감정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의 장면은 그 기억을 뒤집는다. 과거에는 놀림의 대상이었던 K팝이 아카데미 무대에서 불리고, 한국어 가사가 전 세계 청중에게 따라 불리며, 그 노래가 주제가상 수상곡으로 호명된다. 이 전환은 단순한 인기 상승이 아니다. 글로벌 자본 권력의 중심부에서 디아스포라적 속성이 로컬의 지역적 정체성과 주체적으로 접합하면서, 무국적 상품에 고정되지 않고 문화적 진정성을 성공적으로 회복해 내는 과정이다.²³ 이재가 “이 상은 성공이 아니라 회복력에 관한 것”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²⁴ 성공은 결과의 언어이지만, 회복력은 견딘 시간의 언어이다. 그 말은 개인의 성취를 포함하며, 한국어 노래와 K팝을 좋아해 온 사람들이 겪어온 조롱, 오해, 주변화의 경험을 함께 품는다.

회복력이라는 표현은 두 층위에서 읽을 수 있다. 하나는 K팝과 한국 문화가 오랜 편견과 주변성을 지나 세계적 인정을 획득했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계 혹은 한국문화를 사랑해 온 사람들이 더 이상 자신의 언어와 취향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도달했다는 의미이다. 이때 아카데미 수상은 산업적 성과인 동시에 감정적 회복의 사건이 된다. 상을 받은 것은 영화와 노래이지만, 그 장면에서 위로받은 것은 오랫동안 주변부에 놓였던 문화적 감각이다.

번역되지 않은 한국어의 수용은 K-컬처의 다음 단계를 암시한다. 더 이상 한국 문화가 세계에 맞추어 자신을 완전히 변형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판소리, 장단, 한복,

20 이민지. (2026, 3월 16일). ‘케데헌’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 가차없는 수상소감 중단에 빈축. 뉴스엔.

21 김제나, 위의 글, 70.

22 허윤. (2024, 11월 22일). 무대 위의 남성성/들과 케이팝의 이성한(queer) 젠더수행(performance). 한류 NOW, 63.

23 신사빈, 위의 글, 523.

24 케데헌, 오스카 2관왕 수상... ‘한국인 위한 것’. (2026, 3월 16일). BBC.

민속적 몸짓, K팝의 리듬이 함께 놓일 때 세계는 그 복합성을 낫선 것으로 밀어내기보다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이 수 있다. 물론 한국적 요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세계적 설득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언어와 전통 요소가 단지 표면적 기호로 쓰인다면 그것은 쉽게 장식이 되고 만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서사와 감정, 음악적 완성도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가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경우 한국어는 고립된 언어로 남지 않았다. 그것은 K팝의 리듬과 애니메이션의 서사, 판소리의 에너지, 시상식 무대의 시각적 연출 속으로 들어갔다. 한국어가 번역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어는 달한 민족적 표식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관객이 함께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사운드로 열렸다. 이때 한국어는 의미의 장벽이 아니라 감정의 통로가 된다.

따라서 「골든」의 성과는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들렸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다. 더 깊은 의미는 한국어가 번역되지 않은 채, 그러나 고립되지 않은 채, 글로벌 무대의 감정과 리듬 속으로 들어갔으며, 팬덤의 주체적 수용을 통해 소리의 주권이 글로벌 차원에서 승인받았음을 입증한다. 이것은 K-컬처가 세계화되는 방식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세계화는 더 이상 자기 언어를 지우고 중심의 언어에 맞추는 과정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기 언어의 소리와 감각을 유지하면서도 타자의 귀에 닿을 수 있는 방식, 바로 그 가능성이 이 무대에서 울려 퍼졌다.

5. 결론: K-컬처의 다음 국면과 소리의 주권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2관왕은 분명 K-컬처의 또 다른 성취로 기록될 만하다.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는 사실, 골든글로브와 그래미를 거쳐 아카데미까지 이어진 수상 경로,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통한 확산, K팝 사운드와 애니메이션 서사의 결합은 모두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의미를 수상 실적이나 글로벌 흥행으로만 정리한다면, 정작 이 무대가 남긴 가장 중요한 장면은 놓치게 된다. 아카데미 무대에서 울려 퍼진 것은 단순히 성공한 K-콘텐츠의 음악이 아니었다. 판소리는 판소리의 발성으로, 한국어는 한국어의 리듬으로, K팝은 K팝의 에너지로 세계의 중심 무대에 섰다. 번역과 조정의 과정없이 그 자체로 세계적 공명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 지점에서 판소리의 등장은 중요하다. 판소리는 한국 전통음악의 상징으로만 호출되지

않았다. 그것은 애니메이션의 세계관을 열고, 무대의 정서를 끌어올리며, K팝 보컬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드는 시작점으로 기능했다. 판소리, 사물놀이, 한복, 갓, 장삼, 민속무용이 정형화된 ‘한국적 분위기’를 만드는 표면 장식에 머물렀다면 이 무대의 의미는 훨씬 약해졌을 것이다. 전통은 장식될 때보다 작동할 때 살아난다. 그것이 인물의 감정, 장면의 리듬, 작품의 세계관 안에서 힘을 발휘할 때 비로소 현재의 언어가 된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무대가 흥미로운 까닭은 전통을 전시한 것이 아니라, 전통의 소리를 현재의 서사 속에서 다시 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위상 변화도 주목을 요한다. 한국어 가사는 번역의 장애물이 아니라 K-컬처의 중요한 사운드 자산으로 기능한다. 발음의 밀도, 억양의 높낮이, 반복되는 어절, 후렴의 리듬, 감정이 상승하는 순간의 음색은 모두 음악적 효과를 만든다. 세계 팬들이 한국어 가사를 그대로 따라 부르는 현상은 단순히 의미를 이해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의미 이전에 소리가 먼저 몸에 닿고, 리듬이 기억되며, 발음의 낯섦이 오히려 매력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한국어는 더 이상 세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감추어야 할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그대로 불리고, 따라 불리며, 다른 언어권 청중의 감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음악적 언어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디아스포라 주체들이 지닌 정체성의 정치학과 직결된다. 서구 지배 문화의 주변부에서 오해와 주변화를 경험했던 이산적 주체들에게, 로컬의 소리가 어떠한 변형 없이 세계적 무대의 중심에서 스스로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새로운 감각을 환기하는 계기가 된다. 이는 오랫동안 결핍되었던 재현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되찾는 행위이며, 기득권의 문화적 승인을 기다리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자기 언어로 무대를 장악하는 주권적 실천이다. 따라서 해당 수상은 상업적 성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주변부에 놓였던 문화적 감각을 치유하는 감정적 회복의 사건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K-컬처는 한국 내부의 문화만을 가리키는 좁은 개념으로 남을 수 없다. 그것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이면서, 전 세계 한국인과 한국계 디아스포라, 그리고 한국문화를 사랑해 온 다양한 수용자의 감정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장이 되어야 한다. K-컬처가 세계적으로 확산될수록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수가 아니다. 누가 그 문화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가, 누가 그 언어와 소리를 통해 오래된 열등감이나 주변성을 넘어서는가, 누가 그 무대를 보며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가가 중요하다.

이 지점에서 세계화의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세계화는 더 이상 낯선 것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낯선 소리와 이미지, 지역적 감각을 설득력 있는 예술적 형식 안에 배치하여 세계인이 그 복합성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이다. 「골든」의 성공은 바로 이 공명의 가능

성을 보여준다. 한국어가 영어로 대체되지 않았고, 판소리가 배경음으로 희석되지 않았으며, K팝이 서구 팝의 모방으로 축소되지 않았다. 각자의 소리와 형식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무대가 만들어졌고, 세계 관객은 그 낯선 결합을 거부하기보다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이 사건을 무비판적 자부심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아카데미 수상, 그래미 수상, 글로벌 차트 순위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K-컬처의 가치를 판단할 수는 없다. 성과주의는 때로 문화의 복잡한 의미를 숫자와 트로피로 축소한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어떤 이야기가 만들어졌는가. 어떤 언어가 들리게 되었는가. 어떤 얼굴이 주인공의 자리에 섰는가. 누가 그 화면과 무대에서 자신을 발견했는가. 어떤 전통이 장식품이 아니라 살아 있는 소리로 다시 작동했는가. 이 질문들이 이어질 때 K-컬처 담론은 단편적인 승리의 기록을 탈피하여 문화적 성찰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무대는 한국 문화가 서구 시장을 향해 자신을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했던 과거의 종속적 관행을 종식시킨 장면이다. 무대 위에서 판소리와 K팝은 서로의 역사적 시간을 밀어내지 않고 병존했으며, 한국어는 번역이라는 서구적 여과 장치 없이 발화되었다. 이는 소리의 주권, 즉 지배 문화의 동화 압력에 타협하지 않고 자기 공동체의 소리와 리듬을 스스로 통제하는 문화적 자기결정권이 글로벌 대중문화의 중심부에서 어떻게 관철될 수 있는지를 실증한다. 향후 K-컬처 담론이 지향해야 할 방향 역시 평면적인 승리의 기록을 탈피하여, 이와 같은 소리의 주권의 영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전통과 동시대성, 지역성과 디아스포라적 감각이 독자적인 형식으로 공존하는 장을 구축하는 데 있다. 낯섬을 제거하는 타협이 아닌, 자기다운 소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주권적 실천만이 세계를 진정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될 것이다.

[References]

- 권남영. (2026, 3월 16일). “한국에 바친다”... ‘케데헌’ 2관왕, 마침내 오스카를 품다. 국민일보.
- 김세정. (2026, 3월 16일). “모든 한국인에 바친다” ‘케데헌’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 KBS뉴스.
- 김윤희. (2026). K-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서사 맥락과 ‘노래’의 수행성-무속적 제의 노래 기능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52.
- 김제나. (2025). 영어 중심 K-pop의 문화적 정체성과 초문화적 수용: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95.
- 김현주. (2008). 판소리의 다문화적 성격과 문화연변. 구비문학연구, 26.
- 김희선. (2025). 국악의 전유와 K-헤리티지의 협상: 디지털 전지구화 시대 K-팝의 한국적 미학의 재구성. 이화음악논집, 29(3).
- 배순탁. (2025). [배순탁의 셋리스트] K팝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 비결은?. 나라경제, 419.
- 신사빈. (2018). 케이팝의 수출 지향적 음악 정체성 존리(John Lie)의 『케이팝(K-Pop)』. 대중서사연구, 24(3).
- 신하울. (2022). 판소리와 가야금병창의 성음 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안현진. (2018, 9월 5일). [아시아계 배우들의 활약①]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스> 할리우드 흥행의 의미. 씨네21.
- 외국인들 “K팝 때문에 한국어 배워”. (2012, 4월 4일). 국민일보.
- 이가영. (2026, 3월 16일). 아카데미에 등장한 판소리와 북... 한국문화 담은 ‘골든’ 무대. 조선일보.
- 이민지. (2026, 3월 16일). ‘케데헌’ 아카데미 주제가상 수상, 가차없는 수상소감 중단에 빈축. 뉴스엔.
- 장혜선. (2021). 방탄소년단 콘텐츠 팬자막의 번역 전략. 인문콘텐츠, 63.
- 정명교. (2015).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향한 문학적 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교류 텍스트 구성과 번역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3(2).
- 최진형. (2017). 판소리에 나타난 구술성, 서사성, 연행성의 관련 양상. 구비문학연구, 45.
- 추혜원. (2020).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과 영화 <기생충>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신문 분석 기득권과 아웃사이드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6).
- 케데헌, 오스카 2관왕 수상... ‘한국인 위한 것’. (2026, 3월 16일). BBC.
- 허윤. (2024, 11월 22일). 무대 위의 남성성/들과 케이팝의 이상한(queer) 젠더수행(performance). 한류NOW, 63.
- 현택수. (2004). 문화의 세계화와 한국문학의 정체성 비언어극 <난타>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20.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Reed, T. (2019). Sonic sovereignty: Performing Hopi authority in Öngtupqa. *Journal of the Society for American Music*, 13(4).
- RemasterKingdom 7.0. (2026, 3월 15일). HUNTR/X KPop Demon Hunters | Golden | Full Performance | Live @ The Oscars Awards 2026 [Video]. YouTube.
- Ahn, Hyun-jin. (2018, September 5). [The activities of Asian actors ①] The meaning of the Hollywood box office success of Crazy Rich Asians. Cine21.
- Bae, Soon-tak(2025). [Bae Soon-tak's Setlist] What is the secret to the success of K-pop and K-Pop Demon Hunters?. *Nara Economy*, 419.
- Choi, Jin-hyung(2017). Aspec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rality, narrativity, and performativity in Pansori. *Korean Journal of Oral Literature*, 45.
- Choo, Hye-won(2020). Newspaper analysis in the US and Korea regarding the 92nd Academy Awards and the film Parasite: Focusing on the power dynamics between the establishment and outsider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6).
- Foreigners “Learn Korean because of K-pop”. (2012, April 4). *Kukmin Ilbo*.
- Heo, Yoon. (2024, November 22). Masculinities on stage and the queer gender performance of K-pop. *Hallyu NOW*, 63.
- Hyun, Taek-soo(2004). Globalization of culture and the identity of Korean culture: A case study of the non-verbal performance Nanta. *Journal of Korean Studies*, 20.
- Jang, Hye-sun(2021). Translation strategies of fan subtitles for BTS content. *Humanities Content*, 63.
- Jung, Myung-kyo(2015). A study on establishing a literary foundation fo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literature: Focusing on the composition and translation of exchange texts. *Comparative Korean Studies*, 23(2).
- Kim, Hee-sun(2025). Appropriation of Gugak and negotiation of K-heritage: Reconfiguration of Korean aesthetics in K-pop during the era of digital globalization. *Ewha Music Journal*, 29(3).
- Kim, Hyun-joo(2008). The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and cultural variation of Pansori. *Korean Journal of Oral Literature*, 26.
- Kim, Je-na(2025). The cultural identity and transcultural reception of English-centric K-pop: Focusing on the OST of K-Pop Demon Hunters. *Journal of Korean Studies*, 95.
- Kim, Se-jeong. (2026, March 16). “Dedicated to all Koreans” K-Pop Demon Hunters wins

- Academy Award for Best Animated Feature. KBS News.
- Kim, Yoon-hui(2026). The narrative context of K-content K-Pop Demon Hunters and the performativity of 'song': Focusing on similarities with the function of shamanic ritual songs. *Korean Shamanism*, 52.
- K-Pop Demon Hunters wins two Oscars... 'For Koreans'. (2026, March 16). BBC.
- Kwon, Nam-young. (2026, March 16). "Dedicated to Korea"... K-Pop Demon Hunters wins two awards, finally embraces the Oscar. *Kukmin Ilbo*.
- Lee, Ga-young. (2026, March 16). Pansori and drums appearing at the Academy... 'Golden' stage containing Korean culture. *Chosun Ilbo*.
- Lee, Min-ji. (2026, March 16). K-Pop Demon Hunters wins Academy Award for Best Original Song, criticism over ruthless interruption of acceptance speech. *Newsen*.
- Reed, T(2019). Sonic sovereignty: Performing Hopi authority in Öngtupqa. *Journal of the Society for American Music*, 13(4).
- RemasterKingdom 7.0. (2026, 3월 15일). HUNTR/X KPop Demon Hunters | Golden | Full Performance | Live @ The Oscars Awards 2026 [Video]. YouTube.
- Shin, Ha-yul(2022). A study on the vocalization analysis of Pansori and Gayageum Byeongchang [Doctoral dissert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Shin, Sa-bin(2018). The export-oriented musical identity of K-pop: John Lie's K-Pop.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24(3).

아카데미 무대에 오른 한국어와 한국적 소리의 문화 정치학 - 「케이팝 데몬 헌터스」 2관왕과 판소리, K팝의 문화적 재구성

이종연(Lee, Jong-yeon)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

신성환(Shin, Seong-hwan)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한국어 요약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2관왕을 계기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어와 한국적 소리가 어떻게 수용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K팝, 판소리, 한국어 가사, 한복, 사물놀이, 민속무용이 결합된 축하 무대를 통해 K-컬처의 문화정치적 의미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이 연구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수상과 주제가상 수상곡 「골든」의 축하 무대를 중심으로, 한국어 가사, 판소리 발성, 사물놀이 리듬, 한복과 민속무용의 시각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또한 매기 강 감독과 이재의 발언을 함께 검토하여 디아스포라 정체성, 재현, 소속감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결론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아카데미 수상과 공연은 한국어와 한국적 소리가 번역되거나 순화되지 않은 채 세계 관객에게 직접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례는 전통문화가 과거의 민속 이미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K팝과 애니메이션의 감각 속에서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또한 디아스포라 창작자의 정체성 회복과 자부심을 통해 K-컬처가 세계 문화장에서 갖는 의미를 확장한다.

핵심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 K팝, 판소리, 아카데미 시상식, 한국어, 소리의 주권, 디아스포라, K-컬처

이 논문은 2026년 5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5월 25일부터 2026년 6월 10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6월 15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